

1990년도 우편사업관계 예산안

일본 1990년도 예산의 정부원안이 89년 12월 29일에 概算閣議에서 결정되었다. 우편사업관계에서는 종래에 비하여 질량공히 압도적으로 개선·충실한 요구항목을 제출하고 있었는데 요구한 중요시책이 전항목 정부원안에 담아서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다. 이 정부원안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본고에서는 89년 7월 이후 정부원안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소개한다.

1. 신생郵務局 최초의 局議

89년 7월 5일, 인사이동에 의하여 구성원이 아주 새로워진 우무국에서 최초의 局議가 우무국장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90년도의 예산요구에 우편사업의 중요시책으로서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가 의제였다. 지금까지 검토를 계속했던 원안이 배포되고 우무국장의 지시가 있었다.

○ 「우편」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이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우편사업을 최초로 시작하여 나중에 저금사업과 간이보험·연금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직원수를 보더라도 우정성 30여 만명 중 우편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은 약 14만명을 헤아

리며 관계직원을 포함하면 약 17만명으로 전 직원수의 55%에 이른다.

「우편사업이 우정사업 나아가서는 우정행정의 근간을 이룬다」라는 기본인식에 입각하여 종래의 틀에 구애받지 말고 우편사업이 선두를 잡고 수행해야 할 과제를 모두다 발굴하자. 그리고 우정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확실히 파악하여 우정성 전체의 입장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고 자세를 바로 잡아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 안될 큰 과제를 추진해 나가자.

○ 실현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동안 비장한 소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과제에 과감히 도전하자. 이용자 국민에게 유익하고 시대의 요청에 알맞는 시책은 진지하게 추진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현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참된 일꾼이다. 「신우편연금의 창설」, 「조직기구의 발본적 개혁」, 「우편저금 자금의 자주운용」, 「일반회계시령에 대한 특별배려」 등 굵직한 제도개정과 예산편성은 모두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장애를 뛰어넘어 실현하기에 이른 것이다.

○ 우편사업은 최근 수년, 각종 서비스

개선을 시행하는 동시에 과감한 영업 노력을 계속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려왔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현행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기업과 동일한 視点만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다이나믹하게 변모하는 시대의 요청에 적확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국민의 편리 향상이라는 시점에서 우편사업을 재인식하여 발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도, 예산편성의 시기부터 관계省廳과 긴밀히 절충하여 필요한 예산을 당당히 획득하여 새로운 법률을 과감하게 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행정적 시점과 수법으로 제도개정에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이상의 기본적인 사고와 자세로 원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全課·室 모두 중요시책으로 채택할 항목을 시급히 반드시 1항목 이상 제출할 것.

대략 이상과 같은 방침이 우무국장으로 부터 제시되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하여 결사적으로 추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라는 국장의 필사적인 기백이 전달되어 우무국 전체가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과·실에서는 중요시책에 무엇을 어떤 관점에 입각하여 취택할 것인가에 대해 주야불문하고 검토를 하였다. 과장·실장회의가 차장실에서 그리고 국장실에서 몇 차례씩 되풀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종래와 달리 많고 커다란 그리고 어려운 과제가 반영된 90년도 우편사업관계예산 중요시책이 작성되어 갔다.

2. 중요시책의 2大支柱

省內的 부국장회의, 자유민주당 통신부회, 전기통신문제조사회합동회의 등에서 심의를 거쳐 89년 8월 31일 예산요구서가 대장성에 제출되었다.

우편사업관계예산요구의 중요시책의 지주는 「지역사회의 진흥에 공헌」과 「우편사업운영 기반의 정비·충실」의 2대사업으로 하였다. 그 취지는 「우편사업이 지역사회의 진흥에 크게 공헌해 나가기 위해, 지역에 밀착한 서비스의 제공·지역의 특성에 부응한 창구기능의 충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우정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우편사업 운영기반의 정비·충실을 도모한다」라는 문장에 응결시켜 표현되었다.

가. 지역사회의 진흥에 공헌

우편제도는 1871년에 창설된 이래, 118년 사이에 걸쳐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기본적 정보통신수단으로서, 또는 소형물품수송수단으로서, 경제·사회·문화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최근엔 전국 2만4천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산품소포」를 취급한다든가 「郵토피어 구상」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진흥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 「다극분산형국토의 형성과 풍요롭고 매력있는 지역사회 실현」이 일본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우편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체 등과 제휴를 하면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최대한

2. 중요시책의 2大支柱
*지역사회의 진흥에 공헌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고도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풍요롭고 매력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한층 공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점에 입각하여 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창구기관의 설치·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창구 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진흥에 한층 공헌해 나가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것은 중요시책의 큰 기둥의 하나로 된 것이다.

나. 우편사업운영기반의 정비·충실

「우정사업 나아가서는 우정행정의 근간을 이룬다」는 우편사업의 10년 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연간 우편업무수입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 2,500억엔의 누적결손금을 안고 있는 동시에 「택배편」의 진출에 의하여 소포우편물은 격감되어 우편사업경영은 마침내 위기적 상황에 있었다. 「근간」은 고사하고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남아 갈 것인가가 의문시 되었다. 그후 사회경제의 활성화·각종 서비스의 개선·직원의 활발한 영업활동·협조적인 노사관계 수립 등에 의하여 87년도에는 그 누적결손금을 해소하고 88년도까지 8년 도 연속의 흑자를 달성할 수가 있었다.

바로 지금 우편사업재정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편, 사회경제의 활성화·인구의 도시집중화 경향 등에 따라 대도시 및 그 주변지역에 있어서 우편물이 격증하여 현재의 요원·시설로서는 대응하는 데 곤란한 상황이 일부 우

증가하는 우편물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지연배달을 초래하고 이용자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그 결과, 우편사업경영이 또다시 동요하게 되는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편물을 원활히 처리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요원의 확보를 도모하는 한편, 장래의 우편사업경영기반을 확고하게 하도록 관련사업에 출자 등을 단행하여 「우편사업운영기반의 정비·충실」이 중요시책으로 또하나의 큰 지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층 더 가속하는 국제화 상황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우편관계 직원의 영입」, 「외국 우정청과 우편정보 네트워크의 구축」등의 국제 우편관계 제시책을 처음으로 중요시책의 항목으로서 취택했다.

3. 「우표文通振興課의 신설」등의 조직개정도 요구

니즈에 대응하는 다양한 우표 발행정책의 책정·개인간 통신의 진흥·연합서제도의 발본적 재검토·세계우표 디자인 콩쿨의 실시 등 우표·문통진흥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總務課우표文通室」을 「우표 문통진흥과」로 승격시키는 조직개정을 요구했다. 통례적으로 조직요구 가운데에서 「진흥」의 2문자를 삽입하여 인정하자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에서 도피하지 말고 도전한다」라는 우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우표문통진흥과」의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우체국의 설치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종래 우무국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우

* 우편사업운영
기반의 정비·
충실

3. 「우표文通振
興課의 신설」
등의 조직개
정도 요구

이 상황을 방지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무국에서만 결정하고 있던 것을 우정창구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국민의 니즈에 적확히 대응키 위해, 貯金局・簡易生命保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에 3사업간의 조정을 우무국이 행하는 것으로 하는 소장사무의 변경도 요구했다.

4. 4개의 최종점 항목

중요시책의 2개의 큰 지주 밑에 20항목의 구체적인 요구가 제시되었다. 그중 실로 14개 항목이 신규요구사항이며 중요시책 금액의 대전년도비는 21배 증가하였다. 이는 신생 우무국 각과・실의 적극적인 추진 자세를 여실히 말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다음의 4항목을 최종점 항목으로 하여 그 실현을 지향하여 진지하게 착수하기로 했다.

- 업무위탁에 의한 소규모 점포의 설치
- 주민표・패스포트・철도승차권 등의 교부 등 창구 서비스의 다양화
- 사업운영기반의 정비에 도움이 되기 위한 관련사업에 출자
- 우편물 증가에 대응하는 요원의 배치
그 각각의 취지・내용과 각항목이 여하히 결착했는가는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정부원안결정까지의 하일라이트 몇가지를 소개한다.

5. 司馬遼太郎 씨의 옛세이

89년 10월 12일 자유민주당통신부회・지방정책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위원회는 1987년 12월, 살기 좋은 지역사회만들기를 위한 우체국의 활용을 검토하여 제

언하기 위해 통신부회의 젊은 층이 중심이 되어 설치되었고, 많은 중요한 제언을 해 온 극히 활동적인 위원회이다. 당일의 소위원회는 우정성의 1990년도 예산요구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우정성 전체의 예산요구의 개요 등을 간추려 정리한 자료 이외에 각 부국으로부터 각각의 소관에 대한 요구에 관련된 자료가 배포되었다. 우무국에서는 30페이지에 걸쳐 작성된 자료를 배포했다.

설명에 나선 우무국장은 요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각 및 추진자세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배포자료의 하나를 인용했다. 그것은 文藝春秋 89년 9월호의 권두언 隨筆에 게재된 司馬遼太郎(일본의 저명한 문필가)의 옛세이였다.

그 중에서 司馬 씨는 「18,9세기 일본의 근대국가 설비로서의 조건은 대학과 철도와 우편제도 일 것이다. 또는 이에 병원을 포함시켜도 좋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우편제도가 일본의 역사 속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유서깊은 제도이며, 근대국가 설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이기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무국장은, 「나는 이 문장에 접하자 우편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편사업은 우정사업 더 나아가서는 우정행정의 근간을 이룬다』라는 확신을 점점 더 깊게 가졌던 것입니다. 긴 역사와 전통을 갖는 중요한 국가의 제도인 우편이 앞으로도 국민의 負託에 부응하여 공무서비스로서 일익 발전해 나가려면 시대의 변화에 수반하여 고도화・다양화하는 국민의 니즈에 민감하고 적확하게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

- 4. 4개의 최종점 항목
- 5. 司馬遼太郎 씨의 옛세이

니다」라고 역설했다.

이 설명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강열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이며, 그후 이 화제를 인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

이 소위원회에서 우편사업관계예산요구 중요시책에 대하여는 그 적극적인 추진이 평가받게 된 동시에 제도개정 3건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나 당위원회의 제안을 받은 것이며, 지역대책으로서 대대적으로 할 것」으로 강력한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동 위원회층의 제출자료 중에 「89년 10월 11일 오후 6시 현재」로 하여 관계 省廳과 절충상황에 관한 자료가 있다. 관계 省廳의 국장·우정성의 구상·절충회수 등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 중에서 課長補佐·課長레벨에서 절충회수를 살펴보면,

- 주민표의 교부 등 관계=自治省 16회·法務省 11회·外務省 15회·運輸省 10회
- 관련사업의 출자관계=大藏省 30회·總務省 2회·勞動省 3회·人事院 1회·外務省 3회

이와같이 해서 9월 이후 요구실현을 위한 진지한 절충이 관계省廳과의 사이에서 거듭되었다. 가을도 깊었고, 연말을 곧 맞게 될 무렵이 되어도 郵務局全課·室의 사무실에는 밤이 깊도록 원등이 켜져 있었다.

6. 他方郵政局·우체국 등의 큰 지지

「…………(전략)………… 연말이 다가와 우편업무도 가장 바쁜 시기를 맞고 있는데, 진두지휘하며 활약하는 모습은 매우 기쁨

니다.

각설하고 귀관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던 90년도의 우편사업관계 예산요구에 대하여는…………(중략)………… 별지와 같이 요구사항이 항목으로서 전부 예산정부원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귀관을 비롯하여 간부직원이 지역대책·世論대책 등에 특안의 노력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편관계직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 성과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용자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우편서비스가 제공되어온 것이 큰 지원이 되었음에 대하여 마음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관내의 부하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생략)………」

이것은 89년 12월 27일의 심야, 大臣절충에 「업무위탁에 의한 소규모 점포의 설치」가 실현된 것을 마지막으로 예산절충이 모두 결착을 본 직후에, 우무국장으로 부터 각지방 우정국장 앞으로 보낸 서한의 일부이다.

인용한 문장이 단적으로 표시하는 바와 같이, 우무국이 뚝뚝 뭉쳐서 요구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관계省廳과 절충을 거듭하여 여·야당 의원들의 이해와 지원을 얻기 위한 행동에 전력을 경주하는 사이에, 각 지방에서는 지방우정국·우체국·특정우체국장회·노동조합이 그 각각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이 큰 支援이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제도개정 3건에 대하여는 몇 번씩 각 신문에도 게재되어 찬동하는 의견·논평이 많이 보도되었다.

7. 「90년도 예산편성 대강령」결정

89년 12월 19일 자유민주당 총무회는 「90년도 예산편성대강」을 결정했다. 이는 자민당의 예산편성에서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대강령의 내용이 연말에 예산정부원안의 작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各省廳 모두 요구한 중요시책의 내용이 예산편성대강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자민당이나 대장성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절충을 행하게 된다. 우무국은 종래 예산편성 대강령의 절충과는 거의 無緣의 존재이었다. 이것은 유감이지만 정부 여당이 예산편성의 단계에서 採否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만한 큰 시책을 이제까지 우편사업관계의 예산요구로서 제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90년도 예산요구에서는 양상이 일변했다. 우정성관계의 「정보통신정책과 우정사업의 충실」의 1항목으로서 「지역사회의 진흥에 공헌과 우편사업 운영기반의 정비·충실」이 채택되어, 다음과 같은 요구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포함되었다. 「주민표의 취급 등 창구서비스의 고도화, 업무위탁에 의한 소규모 점포의 설치 등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창구기능의 충실, 지역에 밀착한 서비스의 제공 및 파소지역에 있어서 특산품소포의 개척 등에 의한 지역사회 진흥에 공헌하는 동시에 우체국 토지의 고도이용·우편물의 증가에 대응하는 요원의 배치 등에 의한 우편사업운영기반의 정비·충실을 도모한다.」

최종점 항목 4개항 모두가 포함된 내용이다. 이 예산편성대강령의 결정은 요구

실현을 향하여 큰 힘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關係省廳과 어려운 절충이 계속되었다.

우무국 안에는 여전히 한밤중까지 전직원이 업무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사상 최고매수의 연하엽서 발행·노동조합과 교섭·각종회의의 개최 등의 예년의 업무와 그밖에, 11월 1일에는 현안의 연말연시 선물 우편엽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성립시켰고, 또 11월 13일부터는 워싱턴에서 UPU대회가 개최되어 2주간 우무국장이 출석하게 되는 큰 행사도 있었다. 그밖에 90년 8월 6일 개국 예정의 新東京우체국 및 東京소포우체국 관계의 큰 업무도 있었다.

예산관계 사무와 이들 업무가 중첩되어 피로가 극에 달했던 직원도 수없이 많았고 생각되나 모두들 대체로 밝은 표정으로 정력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8. 예산절충의 클라이맥스·大臣 절충

89년 12월 24일, 대장성으로부터 제1차의 內示가 있었다. 전날까지 바듯하게 절충을 계속해 왔으나, 중요시책의 각 항목에 대한 내시는 예상한대로 난점이 많은 내용이었다. 그후 4일간, 사무차관 절충까지 사무적절충이 철야로 계속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27일 심야 「업무위탁에 의한 소규모 점포의 설치」가 우정성 유일의 大臣절충항목으로서 남겨지게 됐다. 이 시책이 대신절충항목으로 된 이유로서는, 우정사업 전체의 장래에 깊이 관련되는 시책인 것, 대도시에 있어서 창

- 7. 「90년도 예산편성 대강령」결정
- 8. 예산절충의 클라이맥스·大臣절충

구설치의 새로운 방책인 것, 신문 등에 기사가 게재된 바 있는 화제성이 있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우무국 단독시책으로서 대신절충은 우무국사상 이것이 처음 있는 것이었다.

대신절충은 각 省廳의 대신이 단독으로 대장대신실에 들어가 절충하는 것이 된다. 대장성은 대신 이하, 차관·주계국장·주계국차장·주계관 등 올캐스트로 對陣한다. 이때문에 자민당 통신부회의 의원들이 대신실에 가까운 대기실에서 대신절충을 할 우정대신을 격려하고 또, 우정성의 간부도 사무차관·관방장·우무국장 등의 멤버가 대신을 환송한다. 대신절충은各省 교대로 세분된 스케줄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신실과 대기실의 사이라든가 복도는 취재하기 위한 보도진을 포함하여 러시아워처럼 혼잡하다.

드디어 오후 11시 30분, 운수대신이 퇴실하고 우정대신이 등장했다. 얼마 동안 긴장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정대신이 만면에 웃음을 띄고 실을 나왔다. 「요구한 대로 인정되었다」라는 말에 관계자 일동은 안도의 숨을 가다듬었다. 곧바로 대장성의 기자클럽(재정연구회), 또 우정성으로 돌아와 우정성기자클럽에서 회견이 있었다. 이렇게해서 90년도 예산의 대신절충은 종료했다.

9. 절충 결과의 개요 및 앞으로의 추진

*업무위탁에 의한 소규모 점포의 설치

9. 절충 결과의 개요 및 앞으로의 추진

최종점 4항목 등의 절충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위탁에 의한 소규모 점포의 설치

근년, 대도시에서 지가가 올라 사무실 공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민간 금융기관수와 우체국창구수의 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東京 도심부에서 우체국 창구의 부족은 현저한 바 있다. 예컨대, 우정성 근처의 교차점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민간금융기관의 커다란 간판이 15개나 즐비하게 있는데 비해 우체국은 S 빌딩내우체국이 오직 하나 보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장려부문의 실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이대로 방치하면, 우정사업 전체의 활력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 대도시에서는 이용자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우체국도 야간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는 새로운 니즈도 발생하고 있다.

본 시책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체국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가 극히 곤란한 상황에 있는 대도시에서 업무위탁방식에 의한 소규모 점포를 설치하고 이용자의 편리를 향상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우편사업 뿐만 아니라, 우편자금·간이보험연금사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책이다.

물론, 창구기관의 확충은 별정우체국의 설치에 의할 것을 기본으로 했던 종래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 현재, 본성에서는 우무국장을 회장으로 하는 舉省體制의 멤버 구성에 의한 「대도시창구설치추진협의

회」를 설치하여 별정우체국창구의 증설을 정력적으로 추진하여 실효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금회의 시책이 인정됨에 따라 현재의 별정우체국에 의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터미널역 주변·백화점 등에 별정우체국을 보충할 것으로 하고, 심야영업 등의 소규모 점포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우정창구 서비스가 더욱 충실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90년도 예산에서는 10개 점포의 설치가 인정되었고 현재 실시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의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나. 주민표·패스포트의 교부 등 창구 서비스의 다양화

본 시책은 주민의 이웃에 존재하는 우체국 창구에서도 주민표의 복사·패스포트 등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우체국 네트워크의 유효활용에 의해 지역주민의 편리를 향상시키는 데 공헌하려고 하는 시책이다.

우체국 창구에서 주민표 취급에 관하여는 1987년 4월에 千葉県佐倉市에서 별정우체국장이 중심이 되어 「주민표 등의 신청·교부의 우송서비스」가 처음 시작되어 현재 전국에 약 305市町村, 약 3,080의 우체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우송서비스는 신청에서 교부까지 약 1주일을 요하게 되므로, 市町村의 창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우체국의 창구에서 직접 교부 사무를 해주길 바라는 요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외부의 유식자에 의한 「우편의 기본문제에 관한 조사연구회」등으로부터도 본 시책을 실행하도록 하라는 답신이 나오고 있다.

또, 패스포트에 대하여는 「해외 도항자 수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패스포트의 취급사무소는 都道府県廳 등 전국에 불과 200개소이고, 패스포트의 신청·교부를 받아 본 경험있는 사람은 거의 예외없이 그 불편함을 통감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본 시책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용자 국민의 편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자치성·법무성·운수성 등의 권한에 크게 관계되는 시책이므로 관계성청과의 절충은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예의절충을 거듭한 결과, 본 시책에 관해서는 조사연구비가 인정되었다.

지역주민의 강한 요망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구체적 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계성청과 예의 협의하여, 91년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우정국·우체국에 있어서도 지역자치체와 제휴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선취하고 실적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 사업운영기반의 정비에 이바지하기 위한 관련사업의 출자

우편사업은, 근년 급증하고 있는 우편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제를 확립하는 등, 사업운영기반의 정비·충실을 도모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되었다.

한편, 근년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도심에서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토지의 고도이용이 요구되고 있어, 상가의 중심부 등 편리한 장소에 있는 저계층의 우체국의 토지에 대하여도 그 고도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또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답신

* 주민표·패스포트의 교부 등 창구서비스의 다양화
* 사업운영기반의 정비에 이바지하기 위한 관련사업의 출자

이나 経因連·경제동우회의 의견 등에서도 민간활력을 이용하면서 공공시설의 용지를 고도로 이용하도록 지적되고 있다.

본 시책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출자의 대상사업으로서는, ① 우체국 토지의 고도이용에 이바지하는 사업 ② 우편물을 운송하기 위한 용기의 供用 및 보관을 하는 사업 ③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직원의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 ④ 국제우편기구(국제우편의 서비스향상 등을 위해 선진제국 20개국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4개사업을 내놓았다.

9월 이후, 대장성을 비롯한 관계성청과 연일 절충을 거듭한 결과, 그 중심시책인 우체국 토지의 고도이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를 얻게 되었으나, 출자 자체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하여 우편사업의 경영기반의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비가 인정되었다. 91년도 실현을 목표로 대장성 통과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예의검토하기로 하고 있다.

라. 우편물의 증가에 대응한 요원의 배치

급증하는 우편물의 적정한 처리에 필요한 정원·임금·초과근무수당 등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최종점 항목의 하나로서 요구한 것이다.

정원은 제7차정원삭감 계획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관계성청의 이해를 얻어 순증 1,325명의 요구에 대해 성립은 순증 852명으로 89년도 예산의 401명에 비해 배 이상으로 되었다. 이는 75년도 이후 최대의 증원수인 것이다.

*우편물의 증가에 대응한 요원의 배치
*우편물 완전 구분 등 수당
*건설계정

초과 근무수당은, 일반회계의 재정재건이라는 사정 아래에서 우편사업도 급여증액의 억제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이도 관계省廳과 절충결과, 89년도 예산에 대비 52억엔, 비율로는 9.4% 증가하였다. 이것도 80년도의 우편요금 개정 이후 최고의 신장율이다.

또, 임금도 예산의 편성방법의 문제로서 급격한 신장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관계省廳과 끈질긴 절충의 결과 89년도 예산에 비해 102억엔, 비율로는 24.7% 증가하였다. 이것도 80년도의 우편요금 개정 이후 최고의 신장율이다.

이와 같이 커다란 성과를 올리게 된 요인의 하나는 우무국장이 대장성의 현역의 주계국차장으로서 처음으로 우체국시설 견학을 실현시킨 것 등, 대장성의 클라스가 우체국 업무운행의 현황을 피부로 느끼게 한 것이다.

마. 우편물 완전구분 등 수당

이 수당의 창설에 대해서도, 대장성 제2차회의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와 매우 난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관계省廳과 예의 절충을 거듭한 결과, 업무운행면에서의 직원의 능률을 반영한 우편물 완전구분 등 수당이 예산 13억으로 창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직원의 근로의욕이 더한층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 건설계정

우체국사·토지 등 건설관계예산도 일반회계와의 횡적보조 맞추기로 심하게 억제하는 상황에 있었으나 89년도 예산에 비

해 165억엔, 비율로 21.1% 증가하였다.

사. 기타 지역진흥시책

신규사항으로 인정된 「특산품소포의 개척」에 의해 1촌1품운동의 전개를 지원하는 등 과소지역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우표」· 「지방그림엽서의 발행」에 의해 관광자원의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지역의 실태에 대응한 우편창구 시간의 설정」 「무인 우체국의 설치」등에 의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용한 창구기능의 확충을 도모하기로 한다.

아. 국제화에 대응하는 우편관계시책의 충실

국제관계의 중요시책으로서 처음 인정한 「개발도상국의 우편관계직원의 영입」 「외국우정청과 우편정보네트워크의 구축」등에 의해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9. 예산규모는 1조7천억엔 · 84억엔의 흑자예산

이상, 중요시책에 대하여 기술하였는 바, 그를 포함한 전체의 예산규모는 별표와 같다. 89년도에 이어 90년도에도 흑자 예산으로 84억엔의 이익을 예상하게 되었다.

표중의 「우편업무수입 1조 5,748억엔」은 그것이 곧 90년도의 우편판매목표액으

로 되는 것이다. 관계직원 전원의 노력에 의하여 목표액을 상회하는 수입을 올리는 동시에 경비의 삭감을 도모하여 결산에 있어서는 84억엔을 잇도는 이익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10. 21세기의 우체국 만들기를 위하여

「앞으로의 우정사업은 우편·저금·간이보험이라는 縱的체계로 생각하면 안된다. 우체국 네트워크인 귀중한 국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는 개개의 사업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체국이 전체로써 사회에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시책을 창출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에 전기통신행정주관청의 매립을 더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체국의 유용성은 흐려지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우정사업 내지는 우정행정의 쇠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우무국장의 최근 발언이다.

이상 90년도의 우편사업관계 예산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에 따라 우정사업의 현재와 먼 장래를 똑똑히 바로 보고, 21세기의 우체국은 어떠한가 할 것인가를 직시하면서 책정되었음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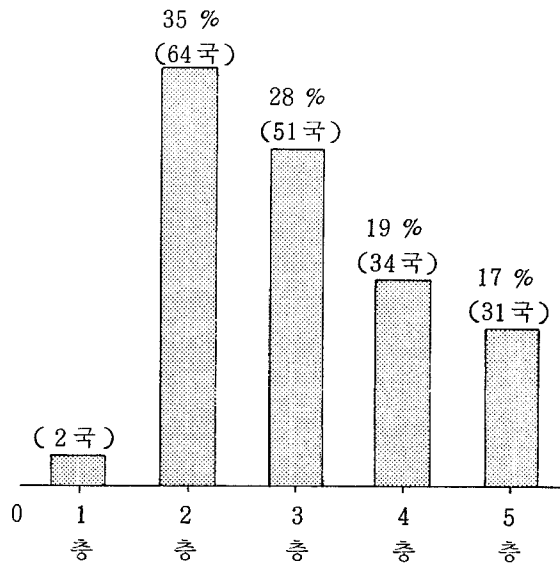
(후지오가 미찌히로, 우무국 조사관)
(post 21, 1990.3)

*기타 지역진흥시책
*국제화에 대응하는 우편관계시책의 충실
9. 예산규모는 1조7천억엔 · 84억엔의 흑자예산
10. 21세기의 우체국 만들기를 위하여

■ 전국의 우체국·사무소수

우체국 (간이우체국 제외)	약 19,400 국
주민표복사취급사무소 : 시정촌 (지소·출국장소 포함)	약 6,800 개소
패스포트의 취급사무소 : 都道府縣廳 (사무소 포함)	약 200 개소

■ 도심부에 있어서 우체국의 계층별 비율



※ 대상으로 한 우체국은, 변화가에 있는 배달국 182국의 우체국.

■ 90년도 예산(예정) 우편사업손익계산서

(단위 : 억엔)

구 분	90년도예산(예정)	89년도예산	증 △ 감 액
수 입	17,101	16,050	1,051
우편업무수입	15,748	14,656	1,092
기타잡수입	1,353	1,394	△ 41
비 용	17,017	16,046	971
인 건 비	11,142	10,696	446
물 건 비 용	5,875	5,350	525
이 익 금	84	4	-

(주) 기타 잡수입이란 수입인지 판매수수료 등, △41억엔은 전보배달의 전폐로 NTT로부터의 수입의 대폭감소로 인함.

■ 1990년도 우편사업관계예산(예정) 중요시책일람

(단위 : 백만원)

사	항	절	총	결	과	'90년도 예산액	'89년도 예산액	증 감 액
1. 지역사회 진흥에 공헌						3,492	406	3,086
가. 지역에 밀착한 서비스제공						639	0	639
(1) 취집의 회수증가에 의한 우편스피드업(신규)								
(2) 지방우표의 발행(신규)								
나. 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창구기능의 충실						101	9	92
※(1) 업무위탁에 의한 소규모 점포의 설치(신규)								
(2) 탄력적인 우편창구시간의 설정(신규)								
(3) 무인우체국의 설치(신규)								
(4) 이동우체국의 확충								
다. 창구서비스의 다양화·정보화						2,652	397	2,255
※(1) 주민표·팩스포트·철로·승차권 등의 교부 등 창구 서비스의 다양화(신규)						6	0	6
(2) 우편창구 단말기의 배비								
(3) 동기추적시스템의 구축								
라. 과소지역의 진흥						100	0	100
(1) 특산품소포의 개척(신규)								
(2) 지방 그림엽서의 발행								
(3) 지역정보제공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신규)								
2. 우편사업 운영기반의 정비, 충실						282,912	250,377	32,535
※가. 사업운영기반의 정비에 이바지하기 위한 관련사업에 출자						11	0	11
(1) 우체국 토지의 고도이용에 이바지하는 사업 등에 출자(신규)								
※나. 우편물의 증가에 대응한 요원의 배치						281,198	250,377	30,821
(1) 정원의 확보						852 인	401 인	451 인
(2) 초과근무수당, 임금, 집배운송비의 증액								
다. 근로의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능률급의 개선·충실						1,301	0	1,301
(1) 우편물 완전구분 등 수당(신규)								
라. 국제화에 대응하는 우편관계시책의 충실						402	0	402
(1) 외국우정청과 우편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신규)								
(2) 국제우편추적시스템의 구축(신규)								
(3) 개발도상국의 우편관계직원 영입(신규)								
(4) 영어판 가이드북의 작성등 외국인의 액세스 개선(신규)								
3. 조직개정								
(1) 우표 문통진흥과 신설								
(2) 우체국의 설치 또는 폐지에 관해 3사업의 조정을 우무국의 주관사무로 변경								
합 계						286,404	250,783	35,621

주) 1. 절충결과란의 ◎는 대신절충사항

2. ※는 최종점사항

대전년도 증가액은 전체로 14.2%이나 2-나의 요원배치를 제외하면 약 13% 가 됨.